종합

安, 4월 위기설 직격탄… 50대-영남 지지층, 洪으로 이동

갤럽여론조사 '양강구도' 균열 가속
트럼프 대북강경책에 '안보' 부상
安 지지했던 보수층 16%P 줄고 洪은 16%P 늘어 '반사이익'
洪 확장성 여부-부동층 공략이 열흘 남은 대선 마지막 변수

5·9대선을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兩强) 구도'에 확연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떨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포인트 올랐다. 안 후보 지지층이 두 후보로 분산된 모양새다. 안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잡을지, 홍 후보가 안 후보보다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룰지, 심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만들어낼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

안 후보의 지지층 이탈은 50대와 영남 지역에서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50대에서만 지난주 40%에서 이번 주 22%로 18%포인트가 빠졌다. PK(부산경남)에선 9%포인트, TK(대구경북)에선 4%포인트가 하락했다.

유랑하는 보수층의 '난민(難民) 표심'이 안 후보에게서 일부 홍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으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급부상하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막판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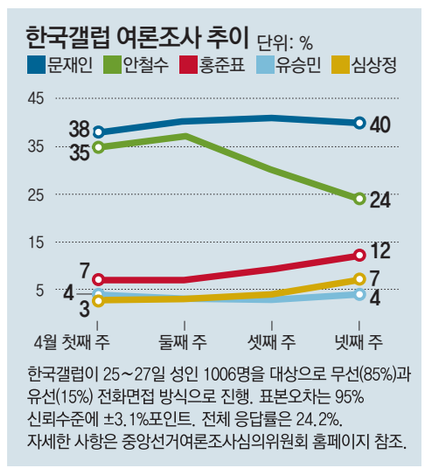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안보 이슈 외에 TV토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V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안 후보는 6%로 꼴찌였다. 특히 안 후보 지지층에서도 '안 후보가 TV토론을 가장 잘했다'는 응답은 20%로, '잘한 후보가 없다'(29%)와 '심 후보가 가장 잘했다'(26%)는 응답에 이어 세 번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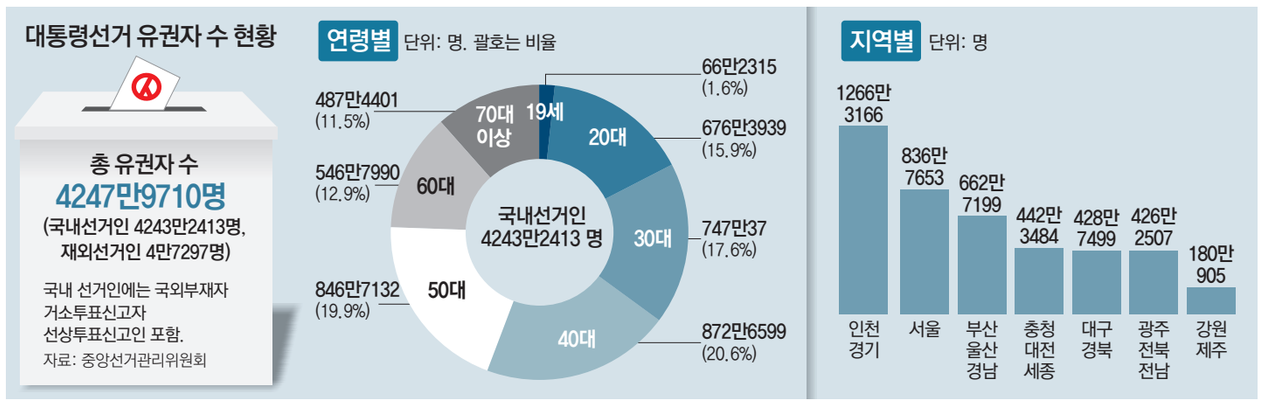
홍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비교해 60대 이상에서 11%포인트, 50대에서 5%포인트가 올랐다.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홍 후보의 지지율은 36%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가 오른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45%)보다 16%포인트가 빠진 29%였다. 안 후보에게서 이탈한 보수층이 홍 후보에게로 고스란히 이동한 셈이다.

그러나 TV토론 이후 홍 후보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특히 50대의 35%, PK의 38%, TK의 35%가 '더 나빠졌다'고 밝혀 자신이 집중 공략해야 할 연령과 지역에도 '안티(반대)층'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반사이익'을 넘어 홍 후보만의 비전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골든크로스'의 관건으로 보인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이 적지 않다. 호남에선 18%, 60대 이상에선 14%, '스스로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 12%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했다. 과거 안 후보에게 관심을 보인 지지층이다. 이들이 다시 안 후보에게 돌아간다면 문 후보 독주 체제를 다시 위협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19대 대선 유권자 4247만명

4명중 1명이 60대 이상… 5년새 22%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국내 유권자 수를 4243만2413명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1만6959명의 82% 수준이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보다 4.9%(196만7772명) 늘었다. 재외선거인 4만7297명을 포함하면 국내외 총 유권자 수는 4247만9710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72만65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꼴이다. 60대 이상 유권자(1034만2391명)는 지난 대선보다 22%(193만449명) 증가했다.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만 19세 유권자는 66만 2315명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文에 긍정적 키워드는 '정권 계승자'… 安은 '희망'

AI로 후보 기사댓글 '키워드' 분석
洪엔 '대한민국 수호' 언급 많고
劉 '최저임금 만원' 沈 '토론회'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

19대 대선 후보들을 웃기고 울린 여론의 '파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키워드는 무엇일까.

동아일보-채널A는 연세대 송민 교수팀(TSMM랩·SSK사업단)과 함께 3월 10일~4월 24일 5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온라인에 공개된 기사와 댓글 등을 수집해 분석했다. 인공지능(AI)으로 수집한 약 700만 개 문장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판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추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권 계승자' '노무현' 등 참여정부 시절과 관련한 단어가 긍정적인 언급에 많이 사용됐다. 반면 '아들 특혜' '송민순 회고록' 등 해명 요구를 받았던 주제는 부정적 키워드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수호' '사드' 등 이념·안보 분야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많았다. 하지만 TV토론회 태도 등으로 '깐죽' 등 부정적 키워드가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희망' '미래' 등 공약 관련 단어는 긍정적으로, '거짓말' '초딩' '유치원' 등은 부정적 키워드로 분류됐다.

각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45일간의 '이미지 지수(높을수록 긍정적)'도 산출했다. 이미지 지수는 대선 이슈와 맞물리며 계속 요동쳤다. 문 후보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4월 17일 최고점을 기록했다.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인 3월 13일 지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 10대 공약 발표(4월 13일), 영남 경선 승리(3월 31일)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지수는 상승세였다. 안 후보도 4월 1일 당 경선 승리 직후에 지수가 한 차례 크게 오르는 현상이 관측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통합 행보'를 보였던 22일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4·12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다음 날(13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점이 됐다. 유 후보도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3월 28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다.

TV토론회는 독이 든 성배였다. 문 후보는 19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주적 논란'에 처한 데 이어 20일 '송민순 회고록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지수가 곤두박질쳤다. 안 후보도 19일 TV토론회가 끝난 뒤 누리꾼으로부터 '초딩 말투'라는 지적을 받는 등 부정적 여론이 늘면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유 후보는 TV토론의 덕을 봤다. 유 후보의 경우 4월 초 다른 후보에 비해 낮았던 지수가 19일 이후 호평을 받으며 껑충 뛰었다. 심 후보는 덕도 봤지만 후폭풍에도 시달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유빈채널A 기자

후보별 긍정 및 부정 키워드 현황 자료: 연세대 TSMM랩(SSK사업단)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긍정	정권 계승자	대한민국 수호	희망	최저임금 1만 원	토론회
	노무현	사드	미래	젊은이	청년
	봉하마을	경선 압승	안랩	군수물자	갓(God) 상정
부정	아들 특혜	도널드 트럼프	거짓말	기업 구조조정	표 분해
	송민순 회고록	깐죽	초딩	북한 문제	○○○(※비속어)
	바다이야기	변방 '독고다이'	유치원	패권주의	종북

3월 10일~4월 24일 온라인 뉴스와 댓글, 블로그, 트위터에 올라온 문장 700만 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

바른정당 이은재 첫 탈당… "홍준표 지지"

내달초 2, 3명 추가 탈당 가능성
유승민 "후보 흔들기에 경고"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재선·서울 강남병)이 28일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4일 창당 이후 첫 탈당자다. 이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좌파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 20명은 이날 오전 공동 명의로 유 후보와 홍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5월 초순경 2, 3명의 추가 탈당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당내에 팽배하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조찬 모임 소식을 전해 듣고 "경고하는데 (후보) 흔들기는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아! 나의조국 대한민국에 더이상 경제대통령은 없단말인가?

■ 우리는 실로 오천년 만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로 이시대를 살고있다. 얼마전 우리조상들은 초근목피에 약한 민족으로 늘 외세침략에 시달리는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고, 이러한 풍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분은 그 누가 무어라해도 박정희 대통령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자, 죽일놈하고 욕과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과일나무의 그 과일을 희희낙낙하며 따먹는 모습이 되었다.

■ 그처럼 잘못한다고 송곳으로 찌르듯이 비난을 해댓던 김영삼, 김대중의 초라한 국가성적표 앞에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들메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되었다.

■ 그들은 오직 잘잘못만 보았지 진정 큰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를 범했던지, 즉 발전을 위한 국가의 무게 중심축을 못 읽었던지, 아니면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를 일으키는 것이 고통없이 저절로 되는걸로 착각을 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순진한 국민필아 개인 영달만을 꾀했던지 셋중 하나인것 만은 틀림없다. 박정희대 통령은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박정희대통령이 심은 경제나무의 약효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느낌이든다.

■ 그 잠깐 풍요의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한때 네마리의 용으로 이름을 날린 시절은, 이젠 옛이야기이고, 그 네마리 용중에서, 싱가포르 5만불, 홍콩 4만불의, 선진국 진입을 하는데, 한국만이 3만불을 십년째 넘지못하고, 추락하는 초라하고 서글픈 모습이 되었다.

■ 그런데도 오도방정 떠는 배부른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중심에 말로는 국가를 위하고 행동은 정반대인 정치인들과 정신 못차리는 일부 국민이 있다. 만약, 박정희 전두환 경제대통령체제가 지금까지 왔다면 한국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세계 최고선두 그룹 국가로, 부상했을것이고 현재와 비교 할수없는 눈부신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다.

■ 규격과 규모에 맞는 풍요의 안정적인 시대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지나고보니 그 아픔은 이를 악물고 좀더 참았어야 했다. 이제 허풍든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우리는 나자신도 김영삼, 김대중을 최고의 국가살림 애국투사로 착각하는 우를 범했다. 모든 잘잘못만 해결하고, 적폐해결하고, 민주주의만 되면 지상천국이 되는거로 착각하는 우를 범했다.

■ 경제불꽃이 시들면 이모든 것들이 암흑 세상이되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

■ 만약, 과거를 회상컨데 박정희, 전두환대통령 시절의 그 독재 고통을 참고 5만불대의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 부강한 선진강국이 되어 실질실효 풍요를 누리는게 좋았을까, 아니면 현재의 이런 꼼도 사라지는 행동없는 말만 무성한 책임없는 오늘의 이런분열 난맥상의 민주주의 체제가 좋을까?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주저없이 전자를 택했을 것이다.

■ 싱가포르는 독재로 성공한 나라로 세계 경제발전 모델의 표상이 되고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실은 방임주의 국가다. 국가법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국가가 민주주의란말인가? 아니면 품질불량 민주주의 국가다.

■ 오늘의 이런풍요는 독재의 아픔을 참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고 그아픔의 희망고통이 사라진 지금, 희망이 사라지는 패망의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다. 누가 국가를 이난국에서 구해낼 것인가? 경제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고 정치 대통령은 실패하는 대통령인데 국가를 살릴 경제 대통령은 보이지않고 또다른 정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입후보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무한 세계경쟁 시대에 밖을 보지 못하는 방안퉁수들의 도토리 키재기를 언제까지 할것인가?

■ 오늘날 대통령의 성적표는 국가 경제성장 잠재율을 키우느냐 못키우느냐에 달려있지, 정치 대통령처럼 얼마나 많이 퍼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걸 민생이라고 대국민 최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것은 간신이 좋아하는 정책으로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행동으로 실제는 망하자는것과 다름없다.

1) 대한민국의 최대목표는 한번더 도약하여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 실로 오천년만에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다면 애통을 넘어 비통한 우리 모습이 될 것이고 역사에 돌이킬수없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역사와 온겨레 민족앞에 큰죄인이 될것이다. 이런기회를 잡았다는것 자체에 대해 크게 감사해야 한다. 특히 야집과 편견독선으로 이전투구하며 하루해를 보내는 정치인들은 역사와 민족앞에 할복자살 해도 부족하다. 온 겨레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설령 반국가 독소 국민 일부를 희생 시켜서라도 국가와 8천만 민족을 살려낼 지도자는 없는가? 아니면 일부희생의 아픔이 두려워, 모두가 망하고 형편없는 밑바닥 국가로 전락하여 또다시 힘이 약한 민족이되어,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본식민지, 6·25의 피비린내 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국가 흥망성쇠의 위대한 선택을 해야할 순간이 온것같다. 어찌 우리가 그날의 그 아픔을 그리쉽게 잊을수 있단 말인가?

■ 우리는 인기주의에 영합한 남미일부 국가처럼 무너지는 선로를 따라 달리는 모습이 되었다.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돌아 나오기엔 너무때가 늦다. 대한민국 좋면시절은 가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영혼없는 입만살은 역신과 간신 반동분자 들로 넘쳐나고 있다. 비단결 같은 명분만 내세워 실제는 국가경제 망가트릴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 국가경제 망가트릴 행동만 골라서 해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우예 국가가 잘될것인기. 열미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들의 특징은 우선당장 임시만 생각하고 명분만 생각할뿐 무책임하다. 주인 의식을 찾아 보기 힘들다. 간신이 좋아하는 민생은 우선당장 임시로 퍼주고 보는게 최고의 민생이고, 충신이 좋아하는 민생은 국가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간신은 따먹고 보자는 사람이고, 충신은 심어야 따먹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맡을바꾸면 간신은 분배 우선이고 충신은 성장우선 이란말이다. 성장없는 분배가 도대체 가능하단 말인가.

■ 국가 대전제 목표는 국가 경제발전성장이고 소전제 목표가 분배다. 분배구조가 잘못 되었다하여 소전제인 분배가 대전제로 둔갑했다가 망해서 나오는 인기영합 주의에 영합했던 일부 국가를 모른단 말인가. 경제논리는 심는게 우선이고 정치논리는 따먹는게 우선인데 대한민국이 우예타가 정치논리 국가로 기울어 경제가 이미 무너지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되었다. 온 국가의 힘과 역량이 부강한 선진강국을 만드는데 모아 져야지 오직 잘잘못 옥석 가리기와 퍼주기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 해결해 준다는 간신들의 달콤한 약발수렁에 빠져 천재일우의 대업을 실기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되길 바란다. 정치논리는 실리보다 실제는 손해보는 명분이 앞서는 교각살우 체제다.

■ 잘못된 작은것 고칠려다 큰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곳이다. 명분만 생기면 지엽적인것이 본질보나 우선하는 실체는 천하방나니 체제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나. 정치논리 명분앞에 경제논리 실익이 난도질 당하는 곳이고, 아무리 좋은것도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심한 곳이다.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살길은 다시 경제논리 국가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2)이제는 나라살릴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의 성적표는 국가경제 성장잠재율을 키우느냐 못키우느냐에 달려있다. 국가경제 성장잠재율을 키우면 비록 현재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는 야기이고 아니면 그반대가 될것이다. 경제대통령은 돈을 벌어오는 미래지향적 대통령이고 정치대통령은 돈을 쓸줄만 아는 무책임한 퇴보 대통령이다. 돈 벌어올 생각은 안하고 인기 영합주의로 퍼줄줄만 아는 사람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사람으로 실제는 자기 영달만을 위해 국가 망가트리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순진한 국민 인정사정없이 속이는 불량 대통령이다.

■ 살벌한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무책임한 방안퉁수 정치대통령은 끝나길 기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박통, 전통, 불통, 깡통, 황통, 뻥통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경제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정치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뻥통으로, 뻥으로 시작해서 뻥으로 끝내는 대통령이었다. 오죽하면 경포대(경제를포기한대통령)란 영광스럽지 못한 칭호를 다 받았겠는가. 나는 약자 편으로 어려운 사람 내가 다 도와주고 힘든사람 내가 다 돕고 훌륭한 일은 내가 다한다고 작정한 분이었다. 한집안 가장도 어려운 사람돕고 힘든사람 돕고 약한사람 돕고 착한일은 내가 다한다고 하면 누가 도대체 돈을 벌어와 가족을 먹여 살린단 말인가. 한국가도 마찬 가지다. 많은사람 먹여살릴 위치에 있는분이 그러고 있으면 누가 돈을 벌어온단 말인가.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개념자체를 아예 갖지 못한 분들이었다. 순도 100% 정치대통령 이였다. 또다시 순도 100% 정치대통령이 나온다면 한국은 치료불능 국가가 됩니다.

■ 이제는 한국은 미래지향적 경제 대통령을 간곡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발전시켜 부강한 선진강국을 만든다면 박제인이면 어떻고 강철수면 어떻고 전준표면 어떻습니까? 정주영씨가 조선강국을 만들고 이병철씨가 전자강국을 만든것처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와 4대강에 목매지 말고 차라리 항공산업에 올인하여 항공강국(여객기,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무현, ○명박, ○근혜라는 개씨 대통령은 안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그게 우리가 계속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좋은 먹거리 사업아닌가?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크게 두자릿수 아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미래희망을 심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씨잘데 없이 헛소리하는 간신 민생이 아니고 진정한 실질 민생이기 때문이다. 막퍼주는 민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 심는 민생이다. 그것은 달콤한 임시 녹아 없어지는 알사탕이 아니고 희망의 미래 꿈사탕이다. 계속되는 개씨 대통령의 출현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은 계속추락 하는데 현재의 잠룡 주자중에 또다른 개씨 대통령이 안될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 어설픈 잠룡주자들의 어설픈 자기만족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국가를 위해 한알의 밀알로 돌아가길 권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려 나가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단을 걷우는 세상이고, 심은대로 걷우는 세상이고, 내일이 비록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여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능금나무를 심는 세상이다. 심지도 않고서 걷운다거나 심은것 보다 더 걷운다고 하는세상은 사실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세상으로 이미 필패를 전제로 출발하는 곳으로 그곳이 바로 정치논리 공산주의 출발점이었고 종착점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 이제 우리나라 최고 충신과 영웅은 정치논리 국가를 다시 경제논리 국가로 만들어내는 대통령입니다. 국가살림 뚜렷한 비전과 소신과 결단의 대통령은 없는가? 정치 대통령은 잘못된 작은것 해결에 집착하여 나라망치고 경제대통령은 큰것에 집착하여 나라살림 대통령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대통령 시대는 제발 종말을 고하게 하소서.

■ 멈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대통령이야말로 이시대 진정한 애국자가 될것이다. 자기 영달에 눈먼 간신들 눈에는 국가 경제성장 엔진이 멈춘것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아첨성 말만이 하늘을 뒤덥고 소탐대실 하기에 바쁘다. 멈춘 성장엔진을 살릴 지도자는 없는가?

■ 경쟁력을 상실한 개인, 회사, 국가의 말로는 실로 비참 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가난한 나라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것 부강한 강성대국이 되는것 얼마나 힘든일 인지도 알아야 한다. 엄청난 인내와 고통 그리고 희생없이도 이룰 수 있는일이 아니다.

3)우리의 살길은 아직도 개혁과 개방이다.

■ 우리는 과거 개혁개방을 일찍하지 못해서 일찍개방을 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국가가 큰어려움을 겪은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일찍개방을 하여 초현대적인 초강국이 되는동안, 니탓내탓 당파싸움 이나하면 주변국들 모두 쿠르렁 쿠르렁 잠만자다가 낙후된 국가가 되어 일본에게 점령당해서 국가를 빼앗긴 나라가 되어 일본의 압제에 치를 떨어야 했던 통한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아!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으랴!

■ 그동안 정치논리 국가로 변질되면서 네마리 용으로 세계경제 발전의 모델이었던 국가가 별볼일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국가가 되었고, 모든것은 좋게 더좋게 만든다는 명분아래 사업환경은 갈수록 나빠져서 경제옥토는 박토가 되었고 법보다는 목소리 큰사람이 왕인나라가 되었고, 비정상이 정상인 국가 되었다. 국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아닌 자업자득 원칙을 천명 해야 맞다.

■ 시도때도없는 온갖 규제공해로 강남간 투자제비가 다시돌아오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고, 말만 개방이지 온갖규제로 실질적인 사업 환경 악화가 되어 실질적 개방은 문을 닫은나라가 되었고, 민생은 오로지 퍼주는것이 최고의 민생이 되었고, 계속도는 개씨 대통령의 출현으로 한국의 경제텃밭은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지는 이슴막히는 순간에 또다른 개씨 대통령이. 생겨나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라가 발전 할려면 세계의 첨단기술들이 몰려드는 무한개방이 돼야 된다. 원망과 원성의 국회도 반성할줄 알아야 한다. 그 반성의 모습은 국회의원 반수이하 즐이기와 강성대국 건설하는데 걸림돌 제거와 경제 살리기에 온통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성장우선이 아닌 규제공해양산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2 for 1. 정책도 나와야 한다.

■ 부강한 강성대국 건설의 국가 대전제 목표가 국가 제일목표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국가 소전제 목표가 대전제 목표보다 앞선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참담할 뿐이다. 잘못된 작은것 해결 하려다 큰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 잘못된 작은것 보다는 큰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그 큰것은 자업자득 원칙의 하늘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모두가 악착같이 일하려는 자세다.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다는 알량한 정치논리의 공산주의는 이 두가지가 무너져 망한 꼿이다. 그래서 정치논리의 공산주의는 하늘원리와 섭리를 무시하는 무신론주의로 망한것이다. 결국 결론은 먹고사는 문제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경제를 살릴려면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와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개인, 회사, 국가의 말로는 실로 비참한 것이다. 부유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위한 국가백년대계 국가발전 변곡점을 이룰 국회판 유신헌법은 제정할수 없는가? 이대로는 한국은 다른국가에 추월당하고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국가발전 변곡점을 필요로 하고있다.

■ 정치논리로 돌아 갈수록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있고, 경제논리로 돌아 갈수록 경제는 살아나는 구조로 되어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는것이 진정한 민생이고 직장 넓히기이지 그외 임시방편은 모두 국민을 속이는걸로, 간신들의 국민속이기 잔치상의 단골메뉴는 이제 살아져야 한다. 옛말에 햇빛날때는 비올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간신주도의 정치논리 사회가 되다보니, 오늘 당장임시만 있을뿐, 말을 바꾸면 흥청망청하는 오늘만 있을뿐,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찾아볼수가 없다.

■ 문제는 무책임 하다는 것이다. 선진국 산업육성은 못해놓고, 주력업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돈 쓸일은 많아지고, 정신 못차리는 일부세력은 틈만 생기면 명분을 앞세워 곰팡이 피어나는 반국가 독소를 퍼트리려고 하고있고 과도한 퍼주기복지 늘어나는 가계부채 국가채무 추락하는 경제, 우예 감당 할것인가?

■ 우리는 지금 할일도 많고 갈길도 바쁘고 여전히 배가 고프지 흥청망청 할때가 아니다. 안보대비와 통일준비도 해야되고, 노령사회 대비도 해야하고, 선진강국도 만들어야하고, 국민의 생활의질도 높여야하고 국가위상도 높여야하고, 자랑스런 부강한 선진강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 책임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말로만 될수있는가. 분명한 목표 방향과 그에 합당한 그 할일을 다할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 모든것을 해결 할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자연으로 돌아가라! 산천초목 으로서의 자연, 정신적인 자연,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원리로서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정치적인 논리로 그자연의 섭리와 원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 당했다 말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한몸쉬 초개같이 버리겠다는 소신과 결단력의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쉽지않은 과제가 되었다. 참랗다는 작은 파도에 옴이조려 못나가는 현재에서, 과감히 창파에 배띄워 험한파도 헤치고 국가대업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갈망한다. 대한민국만세!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자!

2017년 4월 29일 전 우 홍